

# 전국 청년작가 4명이 구현한 날카로운 예술적 시선

제24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4 '사이: 현실과 이상'

전국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선발된 이들이 독창적 시각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24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4 '사이: 현실과 이상'이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자리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다음달 1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4명의 참여작가가 작업한 회화, 영상, 설치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펼친 청년작가들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가는 강민기(부산), 박호은(경기도), 장재민(대전), 윤준영(광주) 등 4명이다. 이들은 경기·강원, 경상·대구·부산, 충청·대전,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대표 공립 기관인 부산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추천을 통해 선별된 뒤 최종 작가선정 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참여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그 이면에 깔린 개인적 심상과 불안을 표현했다. 또한 사회적 부조리를 예술의 형태로 투영해 작품 속에 드러냈다.

강민기 작가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신자유주의를 주제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치작품 '모색', 'Illusion Space', '변질된 상징'과 영상 작업인 'Capturing #1',

내달 16일까지 하정웅미술관서 회화·영상·설치 등 40여점 선별 개인 감정·사회 부조리 등 투영 위안·믿음 통한 희망도 표현해

'Captured# 2' 등을 통해 강 작가의 이러한 메시지를 성찰할 수 있다. 그물망, 어업용 통발, 와이어, 모래 가변설치 등을 이용해 인간 사회의 모순과 욕망 시스템의 부조리 등을 시각화해 꼬집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인다.

박호은 작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적 내면의 불안, 인간관계의 소통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주제로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어둠 너머의 풍경-여명의 숲'은 개인적 내면의 심상을 엿볼 수 있는 독창성이 특징이다. 박 작가는 이 작품에서 개인적인 불안, 우울이 침잠해 올 때의 두려움과 이를 극복해 가는 여정을 이야기한다. 시지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조명 효과로 인간 내면의 감정 변화와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연출해 냈다.

장재민 작가는 전형적인 풍경화와는 다른 작품을 그려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풍경화는 실제 풍경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중심이 아니다. 대상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원근법적인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 화풍으로 숲, 저수지, 재개발된 공사 현장 등을 그려낸다.

황폐화한 자연이나 인적이 드문 삭막한 장소를 배경으로 사회·역사적 의미, 환경



강민기 작가의 설치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1전시실.

적 특징을 작가의 개인적 감정과 결합해 표현한다.

장 작가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순간적인 결정의 연속이다. 즉흥적 판단으로 관습적인 시선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신념은 직관적인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들로 재구성된 풍경 속에서 조우된다.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그의 대표적인 초기작 '비린 곳'과 가장 최근작인 '섬 그림' 시리즈는 특유의 강한 생략 기법과 잿빛의 물감이 강렬하게 조화됐다.

광주 출신 윤준영 작가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독감을 실존에 대한 불안으로 간주했다. 윤 작가의 작업 밑바탕에는 이를 인식한 개인적인 불안이 깔려있다. 그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큰 특징은 먹과 콩테를 이용해 무채색과 검은색으로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배치한다는 점이다.

윤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불안한 현실을 칠할 때의 어둠 속 홀로 떠 있는 등대, 달빛 아래 숲속 풍경, 사방이 닫힌 미로 등으로 표현됐다. 최근 그의 작품에서는 내면의 감정을 뒤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사유의 여정이 중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윤 작가의 '어딘가에', '소란한 침묵', '어떤 믿음' 등의

작품에서 불안 속에서 피어난 위안의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희망을 상징한다.

한편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지난 2001년 시작돼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시나 정신을 기리고 청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청년작가 123명이 선정됐고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다. 지난해부터 (사)광주미술관회의 요청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전시를 공동주최하고 있으며 '하정웅청년작가상' 수여 및 전시 참여작가에 대해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박은식 전남대 교수 피아노 독주회

20일 광주 살롱 아르떼홀

새해를 맞아 음악적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줄 피아노 무대가 마련됐다.

오는 20일 살롱 아르떼홀(서구 상무화원로4번길 14)에서 열리는 박은식(사진) 피아노 독주회다.

이날 연주에 나서는 박은식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로부터 주도면밀한 테크닉과 미술적인 색채를 표현해내는 연주자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기악과 피아노 전공을 실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메나헴 프레스러 교수에게 사사했다. 이후 석사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치고 뉴저지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연에서는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악장 안단테를 시작으로 바흐 콘체르토 2악장 아다지오를 들려주며 베토벤 소나타 14번 '월광'과 드뷔시 '달빛' 연주를 펼쳐낸다. 이어 쇼팽 즉흥환상곡을 비롯해 쇼팽 왈츠 Op. 34 No. 2, Op. 34 No. 3, 라

벨의 '라 발스'까지 다채로운 피아노 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석 3만원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10-7914-5050.

박찬 기자



##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서 국비 10억 확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일환 2년 연속 전국 최고 규모

전남문화재단이 '구석구석 문화배달' 전국 공모사업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전국 공모사업에서 2년 연속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15억8000여만원으로 3월부터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펼치게 된다.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문화요일'이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말에 집중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평일 등 문화수요가 적은 날에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사무직 노동자와 관내 노동력을 책임지는 계절노동자들을 위한 '월요 문화백신', 평일여행이나 당일치기

여행의 수요가 증가함을 반영한 '화요 문화정거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페토 유랑단'을 구성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발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는 게릴라 문화배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과 예산으로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민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던 작년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남의 문화가 있는 날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한강 '소년이 온다', 알라딘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책 전문가 106인 투표 취합 선정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16일 알라딘에 따르면 106인의 책 전문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에서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작품으로 나타났다.

알라딘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21세기의 첫 25년을 갈무리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책: 기억할 책, 함께할 책'

을 기획했다. 작가, 번역가, 출판인,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등 책 전문가 106인을 대상으로 2000년대 출간된 책 중 최고의 책 10권 선정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였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오월문학의 최전선에 위치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어 2위에는 여성학자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 공동 3위에는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와 주디스 버틀

러의 '젠더 트러블'이 올랐다. 이 외에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각각 공동 9위와 공동 14위에 올라 '한강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

알라딘 관계자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독자들에게 지난 25년간의 주요한 저작들을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기획을 추진했다"며 "매체와 온라인 서점 등에서 신간 위주로 소개되는 출판계 상황을 벗어나 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책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